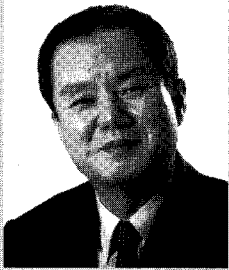


## 친환경 화학제품 개발 통해 고객 행복 추구 세계일류기업으로 도약할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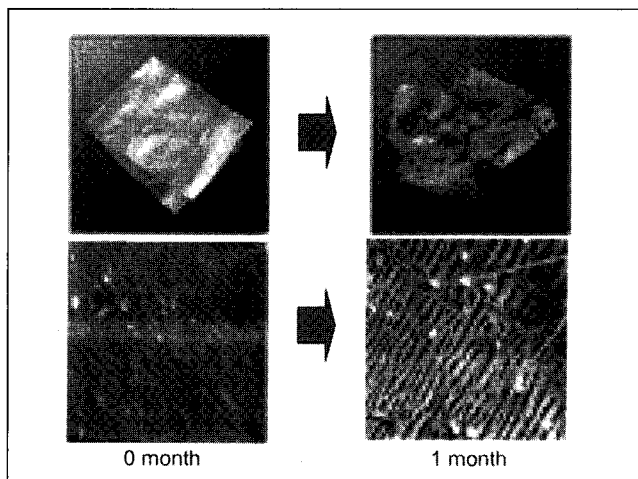


홍 지 호  
SK케미칼 대표

인간과 환경이 조화되는 미래를 만들어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을 꿈꾸는 SK케미칼(대표 홍지호)은 친환경 화학 소재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1969년 회사를 창립한 이래 정밀화학과 생명과학 사업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SK케미칼은 세계 두번째로 고기능성 PETG 수지(SKYGREEN)를 개발했고 폴리우레탄 사업의 획기적 성장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 회사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제품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시켜 온 SKYGREEN BDP는 지방족 폴리에스터와 지방족·방향족 혼합 폴리에스터로서 미생물에 의해 H<sub>2</sub>O와 CO<sub>2</sub>로 분해되는 자연 친화적 생분해성 수지이다.



▲ SKYGREEN BDP 생분해 테스트 결과



▲ SK케미칼 중앙연구소

SKYGREEN BDP는 이미 매립 테스트, 생분해 테스트 등을 거쳐 완전한 생분해성 열가소성 소재로 인정받은 수지로 분해 후나 분해되는 동안 환경에 어떤 해로운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재생 가능한 소재로 PET나 PP와 비슷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좋은 작업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PE보다 연소에 의한 열 발생이 적다.

SKYGREEN BDP는 향후 쇼핑백, 쓰레기 봉투, 도시락 용기, 삼푸 용기, 화장품 용기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으로서 SK케미칼의 주력 제품이다.

그러나 SKYGREEN BDP는 일반수지보다 가격이 비싸 아직 일반적으로 상용화되지는 못하고 일부 업체만이 사용하고 있다.

SKYGREEN BDP를 개발한 SKY THANE팀의 조경진 주임은 “일반수지보다 SKY GREEN BDP는 물성이 약해 이를 보완하는 점이 가장 어려웠다”며 “일반수지에 비해 부족한 강도와 투명성을 개선했지만 비용문제로 인해 관련 업체들과 가격조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에서 생분해성 수지 활성화

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에 앞서 SK케미칼은 SKYGREEN BDP 뿐만 아니라 포장용기 표면에 얇은 필름을 형성시키는 재료인 인체에 무해하고 내마모성이 강한 수성 코팅제를 개발, 친환경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수성 코팅제 제품은 종전제품(유성제)에 비해 광택이 떨어지고 비싼 것이 흠으로 지적돼 왔지만 국내 유명 제과업체들이 선도적으로 친환경 수성코팅재 포장을 채택하고 있다. SK케미칼은 변화를 요구하는 시점에 SK의 수용성 코팅제가 친환경 소재로 각광

# SK Chemicals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케미칼은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매진한 결과 지난 해 수원공장이 환경관리기업으로 환경경영대상을 수상했다.

SK케미칼 수원공장의 환경친화기업 지정은 앞선 ISO 14001(환경경영체계) 인증 획득, 환경경영대상과 어우러져 SK케미칼이 추구하는 환경개선사업 기반구축 노력에 따른 것이다. 또한 SK케미칼은 폴란드 PET 공장 착공, 중국

로의 PTA 제조기술 Licensing-out 등 세계시장으로의 기술수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미 1996년 인도네시아 첫 번째 해외 생산기지를 확보한 바 있는 SK케미칼 PET 사업은 폴란드에 연산 12만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하여 본격적인 생산 및 판매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연 매출규모가 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SK케미칼은 본사가

있는 서울 대치동 사무소와 생산 및 연구소가 자리한 수원, 울산 공장에 1500여명의 임직원 및 연구실 인원이 정밀화학, 생명과학, 석유화학 분야로 나뉘어 기업 발전을 꾀하며 노력하고 있다. SK케미칼 직원들은 SUPEX(인간이 달성 가능한 극한치)을 목표로 회사가 일류기업으로도 약할 수 있게끔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

SK케미칼 홍보팀 오문길 차장에 따르면 "SUPEX을 추



▲ SK케미칼 PET수지



◀ 울산에 있는 PTA/DMT 설비

구하다 보면 일의 계획단계부터 구성원들을 참여시켜 자발적·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커뮤니케이션 관리, 관리 역량 관리, Coordination 관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런 직원들의 노력과 회사의 구조 시스템화가 기업의 경쟁 우위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SK케미칼은 직원들을 위해 ‘SK아카데미’라는 양지그룹연수원에 위탁교육을 마련함으로써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고위관리자를 위한 경영자 양성 코스를

통해 법무, 화학, 해외연수 등의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세계일류기업을 목표로 달려 온 SK케미칼은 지난 해 SK글로벌 사태로 인해 이미 지 타격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혼란스런 분위기에서도 경영자와 전 직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고 있다.

앞으로 SK케미칼은 인간 중심의 사업인 생명과학사업,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지키는 환경관련사업, 정밀화학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이미 진출한 환

경사업인 하수도 정화시스템 사업과 정보통신소재 부품사업 등 신규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전략으로 중국 청도 이외 제2·3지역에서의 정밀화학사업 진출을 성사시키고 국내 울산공장에 정밀화학사업의 생산기지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친환경 화학제품의 개발을 통해 고객 행복추구를 목표로 하는 SK케미칼이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제일의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해 본다. ☐

이한얼 기자